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기아 더 2024 셀토스



한국지엠 트랙스 크로스오버

/각사

경제성·실용성 다 갖춘 ‘소형SUV’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3강 체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효율성 높은 소형 SUV 인기

기아 ‘셀토스’, 올 4.7만대 판매
현대차 ‘코나’ 전년비 326% ↑
쉐보레 트랙스 4일새 1만대 계약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지엠이 국내 소형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10년 중반 국내 SUV 시장의 성장 발판을 마련한 소형 SUV 시장은 2020년대 신차 부재로 위축됐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셀토스, 코나, 트랙스 등 효율성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다.

3일 각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소형 SUV 강자 기아 셀토스는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11월 누적 판매 대수는 4만7079대로 전년 동기(3만8602대) 대비 22.0% 성장했다. 지난달 4446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23.9% 성장했다.

현대차 소형 SUV 코나는 올해 1~11월 누적 판매 대수는 3만2595대로 전년 동기(7660대) 대비 325.5% 성장했다.

지난달 3209대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363.1%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3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 소형 SUV를 알린 쉐보레 트랙스는 당시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용성과 값싼 디자인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지엠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올해 1~11월 2만2019대의 판매를 기록했다. 특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수출 효과’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해외 수출은 지난달 2만5826대를 기록했으며 1~11월 누계 판매는 18만5887대로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소형 SUV 모델의 인기 비결은 한층 넓어진 실내 공간과 뛰어난 연료 효율성, 다양한 첨단 편의 기능 적용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기아 셀토스는 올해 연식변경을 통해 전자식 변속 다이얼 등을 확대 적용했다. 또 더 2024 셀토스는 고객 선호 사양을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외장 디자인을 고급화했다.

현대차 코나는 2017년 출시 이후 올 초 2세대 풀 체인지자를 거쳤다. 이전 모델보다 한층 커진 차체에 소형 SUV지만 다양한 첨단 편의 시설과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 가솔린 1.6 터보, 가솔

린 2.0,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총 4종의 파워트레인을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가성비를 앞세워 지난 3월 출시 이후 영업 4일 만에 사전계약 1만대를 넘어서며 돌풍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매달 3000대 가량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2052만 원~2739만 원의 가격으로 경쟁 모델보다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 2000만원대 CUV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다운 사이징된 엔진으로 배기량을 낮췄다. 1.2리터 3기통 최고출력(139마력), 최대토크(22.4kgm), 복합연비(12.3km/L)로 경제성과 운동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실용성이 높은 소형 SUV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며 “현대차와 기아, 한국지엠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가 내년 신형 모델을 출시할 경우 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 EV9,

‘기아 EV9’ 상품성 글로벌 우수성 입증

북미·유럽 등서 ‘올해의 차’ 수상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기아EV9이 유럽에서 연이은 수상과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북미, 유럽, 세계 올해의 차 후보에 오르며 우수한 상품성을 입증했다.

기아는 덴마크 자동차 기자 협회가 주관하는 ‘덴마크 올해의 차 2024’에서 기아의 대형 전동화 SUV EV9이 ‘올해의 혁신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EV9은 스페인 유력 일간지 라 반가르디아가 전문가 심사단과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한 ‘올해의 차 2023’도 수상했다.

/양성운 기자

코나·GV80 등 완성차 연말 프로모션

제네시스 보유고객 ‘G90’ 할인
KG모빌리티 포인트 제공 행사

국내 완성차 업계가 연말 판매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를 320만원, 코나 일렉트릭을 220만원 할인한다. 일부 재고차에 한해 그랜저와 그랜저 하이브리드, 넥쏘는 최대 400만원, 코나 하이브리드는 150만원, 코나와 투싼은 100만원 각각 할인한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수입차나 제네시스 차를 보유한 고객이 G90을 사면 100만원 할인한다. G80·G80 전동화 모델·GV80·GV80 쿠페는 50만원, G70·G70 슈팅브레이크·G70·GV70 전동화 모델·GV60은 30만원을 각각 할인한다.

기아는 이달 K5, 카니발, 카니발 하이라무진, K8을 구매하는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K5 최대 10%, 카니발 최대 5%, 카니발 하이라무진 최대 7%, K8 최대 200만원을 각각 할인한

다. K5와 카니발은 최근 출시된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신형이 아닌 구형 모델이 할인 대상이다. 기아는 또 전기차 EV6(GT 제외)를 320만원, 니로EV를 120만원, 니로 플러스를 120만원 할인 판매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XM3와 QM6에 ‘굿바이 2023 특별 할인(연말 할인)’ 50만원, 전국 영업 전시장 특별 프로모션 차량 50만원 할인을 각각 도입했다. XM3는 연말 할인 50만원 대신 36개월 0.9%의 초저리 할부 혜택을 고를 수 있다. SM6 TCe300은 연말 할인 100만원, TCe300 특별 할인 300만원, 특별 프로모션 차 할인 20만원 등 420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KG모빌리티는 더 뉴 티볼리(에어포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150만 KGM포인트를 제공한다. KGM포인트는 KG모빌리티 서비스네트워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렉스턴을 사면 최대 200만 KGM 포인트를 받거나 195만원 상당 4WD(사륜구동) 시스템(195만원)을 무료로 장착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이산화탄소로 1kg 상당 일산화탄소 제조

SK이노, 탄소감축 기술 실증 성공

환경과학기술원 독자 촉매 기술
탄소저감 화학제품 생산에 기여

SK이노베이션이 전기화학적 촉매 반응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생산된 일산화탄소는 다양한 화학제품의 기초물질로 활용돼 탄소저감 화학제품 생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연구개발(R&D) 조직인 환경과학기술원은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일산화탄소로 바꾸는 ‘이원자(서로 다른 두개의 원자를 하나씩 붙인 형태) 촉매 기술’을 활용해 하루 1kg 상당의 일산화탄소를 제조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실증 결과는 화학공학 전문 학술지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 지난달 29일자에 게재됐다. 실증에는 국내 전기화학 시스템 전문업체 ‘테크윈’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이원자 촉매를 활용한 일산화탄소 대량 생산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이 최초 구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원자 촉매기술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해 지난해 환경분야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에 게재된 바 있다. 수백개의 원자가 뭉쳐진 기존 촉매와 달리 원자를 하나씩 분리해 만든 단원자 촉매는 활성을 더욱 높이는 기술로 평가 받는다. 이에 더해 이원자 형태로 만

들면 촉매 성능이 더 향상되는 걸 확인한 것이다.

올해 연구에서 연구진은 니켈과 철이 이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촉매를 제조해 촉매 성능을 높였고, 이를 여러 전극 셀이 적용된 전해조에 적용했다. 전해조에서의 전기화학 촉매 반응을 거쳐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로 전환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이번 연구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일산화탄소를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일산화탄소는 초산,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 생산에 쓰이며, 최근에는 메탄올, 합성원유 등 대체연료 생산 원료로 주목 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앞으로도 차세대 탄소저감 기술 상용화를 위해 촉매 성능 개선 및 양산역량 확보를 지속하며, 대내외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준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장은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성과는 에너지·화학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촉매 기술 역량이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활용된 사례로,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 R&D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해 탄소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Z세대 겨냥 ‘그라운드 220’ 오픈

LG전자가 Z세대를 겨냥해 일상 속에서 제품을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는 15일 서울 양평동에 ‘그라운드 220’을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LG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차분하고 여유롭게 경험하며 쉬고 배우는 나만의 일상 공간으로 기획했다.

/LG전자

금호석화, CCUS 사업 핵심설비 첫 삽

CO₂ 포집·액화 플랜트 착공식
연간 6.9만 톤 규모 재사용 기대

금호석유화학이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3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지난 1일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에너지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 S) 사업의 핵심 설비인 CO₂ 포집 및 액화 플랜트의 착공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사에 돌입한 포집 및 액화 플랜트는 2025년 초에 준공 될 예정이다. 플랜트가 준공되면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포집돼 케이

앤에이치특수가스의 액화공정을 거쳐 탄산으로 재탄생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된다. 플랜트 전반에 대한 EPC는 현대중공업과워시스템이 진행한다.

금호석유화학은 플랜트 준공 이후 연간 6만9000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매년 2만7000여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는 효과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다른 고부가 탄소화합물로 전환하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동시에 신규 먹거리와 관련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